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볼 정확히 맞히려 하기보다 끝까지 휘두른다는 생각을

■ 페어웨이 우드 샷·유틸리티 우드 샷

이번 주에도 체아라(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1년) 프로가 담양다이너스티 CC에서 실전골프 모델이 되었다.

채 프로와 함께 페어웨이 우드샷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페어웨이 우드도 볼의 위치는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왼발 뒤꿈치 안쪽에 둔다.

솔(sole·클럽헤드의 바닥)이 넓고 잔디 위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를 지닌 페어웨이 우드는 비교적 샷하기 쉬운 클럽이다. 클럽헤드가 약간 뒤땅이 나와도 솔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볼을 날려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볼을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다보면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져 왼쪽 팔꿈치를 들어올리는 잘못된 스윙자세 때문에 탑들이 나오기 십상이다.

무엇보다도 페어웨이우드 샷은 볼을 맞히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휘두른다는 생각으로 긴 릴리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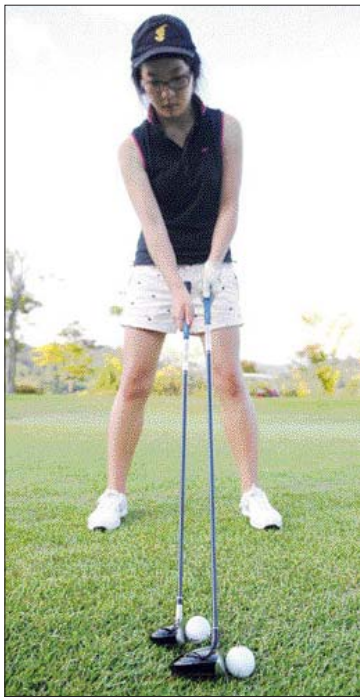
아마추어 골퍼들은 넓은 솔이 잔디에서 미끄러지는 기능이 있다는 페어웨이우드의 장점을 이용하면 좋은 샷을 날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티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띄우려고 하는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페어웨이우드 샷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첫째, 손목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손목을 자주 움직이면 스윙궤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저하지 말고 한 번에 크게 휘두르면 임팩트에서 떨어지는 동작은 나오지 않는다.

셋째, 손목으로 치지않기 위해서는 어드레스에서 어깨와 팔의 삼각형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틸리티 우드 샷 때 볼의 위치는 페어웨이 우드 샷 보다 볼 1~2개 정도 몸쪽으로 놓는게 적당하다.

벙커 넘어 앞핀일 때 러프 탈출하려 할 때 유틸리티 우드 사용

다음은 유틸리티 우드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유틸리티 우드는 아이언 3·4번과 같은 까다롭고 제 거리를 내기 힘든 클럽을 대신해 만들어진 클럽이다. 당연히 페어웨이 우드 보다는 길이가 짧고 로프트도 크기 때문에 샷하기도 쉽다.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 유틸리티 우드가 페어웨이 우드 보다 거리가 더 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틸리티 비거리는 남자의 경우 로프트 18도는 200m, 22도는 180m 정도이다.

여자는 22도 160m 정도이다. 아이언 3번과 4번은 볼을 띄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린에서 잘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볼을 띄우기 쉬운 유틸리티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하는게 효과적이다.

유틸리티 클럽은 22도나 24도가 있으며 벙커나 페어웨이 러프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리커버리 샷(recovery shot·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샷)을 할 수 있다.

체아라 프로도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느낀 유틸리티 우드의 장점 다섯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롱 아이언보다 탄도가 높아 벙커를 넘어서 앞 핀일 때 사용하면 유리하다.

둘째, 러프에서 롱아이언보다 탈출이 쉽다.

셋째, 우드와 롱 아이언보다 다루기가 편하다.

넷째, 라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아이언 보다 충분히 거리 확보가 된다. 특히 헤드스피드가 적어서 탄도가 나오지않는 여성골퍼들에게 유리하다.

다섯째, 거리확보와 동시에 우드보다 방향성이 월등히 좋다.

이처럼 골퍼들에게 유틸리티 우드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다음은 김진철 교수가 페어웨이 우드 구입 요령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클럽헤드는 드라이버보다 더 작아야 한다는 것. 클럽헤드가 크면 클럽면의 중앙에 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마추어 골퍼들이 페어웨이 우드를 구입할 때 큰 관심사항은 로프트이다. 페어웨이에서 뿐만 아니라 러프에서도 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입하는 게 좋으며, 15도와 18도 사이의 로프트는 거리와 정확도 사이의 멋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사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페어웨이 우드 샷은 코킹을 빨리 하는 것보다 낮고 길게 백스윙하는게 좋다.



페어웨이 우드 샷은 끝까지 휘두른다는 생각으로 릴리스를 길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추에이션 골프를

당구자세로 퍼팅하면 2 패널티

Q : 마크를 하고 집어 올린 볼에 붙어있는 흙을 잔디에 문질러 닦았을때.

A : 플레이어가 테스트가 목적이 아닌 단순히 볼에 묻은 흙을 닦아내려 했다면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상당히 그 진위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여 클럽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볼을 잔디에 문질러 닦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

Q : 칩샷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볼 바로 앞에서 볼이 멈추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웨지로 퍼

팅하여 홀 아웃 했을때.

A : 퍼팅은 반드시 퍼터로만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클럽을 사용해도 규칙위반은 아니다.

Q : 퍼팅한 볼이 홀 바로 앞에서 멈춰 당구를 하듯이 자세를 취하여 퍼터의 밑면으로 밀어 넣었을때.

A : 클럽 헤드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여도 상관없지만 스트로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2 패널티를 부과한다. 즉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떠올리거나 해서

는 안된다.

금주의 골프용품

비거리·방향성·타구감 모두 OK



드라이버

아이언

Emax2 E-motion2

1. 드라이버
부드러운 타구감과 놀라운 비거리를 자랑한다.

E2 GOLF가 만들어진 460cc의 박헤드 드라이버는 관성모멘트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미스샷을 방지할 수 있는 허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뛰어난 방향성을 실현했다.

2. 페어웨이 우드
고탄도·저스핀 설계로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 만족스럽다

토픽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드 사용을 망설이는 골퍼를 위해 기존 우드에 비해 무게중심을 보다 낮춘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하여 보다 쉬운 스윙이 가능하다.

헤드의 솔 부분을 부드럽게 디자인하여 스윙시의 라이대응력을 향상시켰다.

3.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우드

치기 쉬운 가능성 디자인으로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다.

롱아이언 보다 치기 쉽고 우드 만큼 거리를 낼 수 있게 정확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밀병기이다.

4. 아이언
크라운을 깎아 내린 듯한 포켓 캐비티 설계로 되어있다. 솔 뒷부분은 텅스텐을 내장시켜 보다 깊은 중심심도와 저중심을 가능케 하였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관성모멘트의 실현으로 볼을 띄우는 것과 비거리를 향상 시켰다.

헤드 형태 디자인은 후방부를 낮게 하여 저 중심화를 만들고 각 아이언 마다 무게를 달리하여 저 중심 설계 및 방향성을 극대화 하였다. 크라운 후방내부에 텅스텐 웨이트를 집중 시킨 것에 의해 전에 없는 큰 관성 모멘트를 실현하였다.

취재협조:골프프리카 062-368-7800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던약국사거리 ♥연락처 1544-0600	한도시상 영화시상 ♥애니: www.joyco.com/ 1588-78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	고래시상 고래극동 ♥ www.ham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다후문 하이스트럭스 ☎ 267-7777	색감있는 영화시상 ♥ www.cinuso.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창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M관 내사랑 내결에 (124) 최고급관 2관 애자 (15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페임 (12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 6관 국가대표-완결판 (124) 7관 이태원 살인사건 (154) 8관 어글리 트루스 (184) 9관 이태원 살인사건 (154)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영상요금 부과	1관 이태원 살인사건 (154) 내사랑 내결에 (124) 2관 애자 (154) 3관 내사랑 내결에 (124) 4관 내사랑 내결에 (124) 5관 국가대표 (124) 6관 해운대 (124)/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7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8관 어글리 트루스 (184)/ S러버 (184) 9관 페임 (124)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1588-7841 상무점원권 발행-(1번 or 2번)→0번	1관 해운대 (124) 2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S러버 (184) / 이태원 살인사건 (154) 4관 페임 (124)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6관 애자 (15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8관 내사랑 내결에 (124) 9관 국가대표 (124)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000원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캐쉬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9-5757 *하미 불꽃장 262-0825 *하미 골프장 251-5000 *하미 당구장	1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2관 페임 (124) 3관 내사랑 내결에 (124) 4관 어글리 트루스 (184) / 날아라 펄컨 (234) 5관 이태원 살인사건 (154) 6관 애자 (154) 7관 국가대표 (12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특차 시무나 (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2관 페임 (124) 3관 애자 (15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어글리 트루스 (184) 6관 이태원 살인사건 (154) 7관 국가대표 (124) *무료주차 3시간 (총주차소설 2시간이주차 1시간) *입장권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

내사랑 내결에

애자

S러버

불꽃처럼 나비처럼

제일 시네마